

神話論的 觀點에서 解釋한 안도 타다오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 哲學家 한스 블루멘버그의 神話論的 觀點을 中心으로 -

변 태 호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주제어 : 한스 블루멘버그, 안도 타다오, 신화, 시학, 와비, 텍토닉

1. 서론

20세기 중, 후반을 들어서면서 현대건축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탄생이나 양식의 개발에서 보다 건축공간의 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건축과 도시에 있어 데카르트(Cartesian)적 '공간'(space)개념 보다 하이데거(Heidegger)식의 '장소'(placeness)개념을 회복해 보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성'의 회복이란 현대건축(Modernism architecture)이 만들어낸 '존재인식'마저 모호해진 사회 환경의 구축과는 달리 지역 환경의 보존과 전통 계승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노력은 어떤 문화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유형들이 그 시대와 장소의 구성원이 지닌 이상과 가치체계 즉 신화적(mythical) 특성을 나타내며,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지닌 기호(sign)적 특성이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의사 전달되어 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형태와 틀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존재인식'(sense of existence)을 제공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이론을 토대로 '존재'나 '자기인식'(sense of identity)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건

축과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지난 20세기 중엽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그들의 공통된 관심은 세계문화의 동질화에 대한 거부와 상실되어 가는 신화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방법으로 최근의 몇몇 건축가들과 이론가들은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상실한 기술적 현대화(modernization) 보다는 진정한 문명화(civilization)를 위해 '인류의 윤리적이며 신화적인 토대들(ethical and mythical nucleus of mankind)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¹⁾ 특히,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신화(myth)란 과거에 존재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성과 문화적 현대화를 이룩하는 핵심적 힘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현대의 건축과 도시에 있어 신화에 대한 이해는 형태와 공간의 의미론적 구축과 해석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되며, 무엇보다 존재의 현존(顯存)을 위한 '장소'(place)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새로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건축에 있어 '장소'에 대한 이론적 개념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신화에 대한 논의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중요성의 강조

1) K. Frampton (1983) 참조.

에 비해, 신화란 무엇이며, 신화론적 관점에서 건축에 대한 비평적 해석과 이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는 듯하다.²⁾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과 신화의 관계에 있어 여러 가능한 연구와 해석 중 우선적으로 신화론적 관점에서 본 건축에 대한 비평적 이해의 한 방식을 제시해 보려 한다.

다시 말해 고대부터 철학에 있어 신화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한 이해와 논리들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신화론적 해석 또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신화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들 중 현대에 가장 주목을 받는 철학자 한스 블룸버그(Hans Blumenberg)의 신화론을 중심으로 특정의 건축적 행위,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적 특성을 재해석해 보고 그로인해 건축에 새로운 사회 인문학적 비평적도, 즉 건축에 대한 신화론적 이해로의 가능한 방식을 제시해 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 철학자 블룸버그의 신화론적 관점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첫째 그의 사유형식이 다른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신화 자체의 생물학적(biological) 발생 근원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 더욱 합리적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블룸버그의 신화론에서 볼 수 있는 신화의 발생근원이나 그것의 구조적 형식이 안도의 주거건축을 특징 짓는 구축개념이나 구조형식과 매우 깊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러한 연구의 논리방식은 안도의 건축적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식해온 미학적 해석보다 그것의 사회문화적 근원을 더욱 잘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안도의 작품에 대한 건축적 해석과 이해는 이미 동, 서양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는 미니멀리스트

(minimalist) 혹은 노출 콘크리트란 재료를 가장 독창적으로 잘 사용하는 현대의 대표적 건축가라는 기술적 혹은 물질적 특성들에 대한 미학적 이해에 한정되어 있는 듯 하다. 반면, 그의 독특한 형태 구축적 표현이 또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폭 넓지 못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안도의 건축적 행위와 특성에 대한 신화론적 이해의 제시를 위해 먼저 세 가지의 서술적 단계, 첫째 신화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 그리고 특히, 블룸버그 그의 중심적 신화논리에 대한 연구, 둘째 안도의 주택설계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셋째 블룸버그의 신화론적 사유에서 본 안도의 건축적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단계적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본 연구에 있어 특히 블룸버그의 신화론에 대한 건축적 이해 부분은 다양한 역사적 건축물들의 실증적 제시와 함께 설명되어 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첫 단계로 논의의 지나친 확장 대신 한 가지 사례에 대한 논의 즉 안도의 건축적 사례만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건축 계획이나 설계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안도의 건축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건축에 대한 과학기술적이며 심미적인 분석의 일반적 연구를 넘어서 인문학적 이해를 시도해 봄으로 건축에 대한 폭 넓은 인식 지평의 가능성을 보이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철학자 한스 블룸버그의 신화론

2-1 신화에 대한 3가지 철학적 사유형식

우리가 세계를 인식해온 방식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란 서로 상반된 두 개념 -과학과 신화- 에 대한 역사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까지 이 두 개념은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해 왔으며, 그 문화 또한 다양하게 특징지어 왔다. 그럼에도 특히 신화에 대한 본질적 정의나 근원에 대한 이해는 과학에 비해 아직 분명하지 않다. 더 더욱

2) 논자는 신화란 무엇이며, 건축을 포함한 예술의 창조성과 문화의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신화의 본질적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이전 논문으로 연구 발표한바 있다. 그러한 이유로 건축에 있어 신화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 제외키로 한다.

현대문화 속에서, 신화라는 주제 자체는 항상 불투명한 모습으로 비춰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 삶과 신화의 관계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신화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 -낭만적 방식(Romanticism)과 계몽적 방식(Enlightenment)- 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³⁾ 첫 번째의 유형으로, '낭만적 방식'(Romanticism)은 현대의 기술 중심 문화와 자본제국주의적 양상에 의해 꾸준히 파괴되어 온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진실된(authentic) 가치와 관계를 발견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찍이 20세기 초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가들의 제3세계 원시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최근 자연환경의 황폐를 회복하려는 생태학적(ecological) 관심의 증가 그리고 원시문화의 구조적 개념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화란 인간의 문화역사를 만들어 온 핵심적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인간 지성(知性)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해석된다. 더욱, 원시문화나 고대사회에 담겨있는 신화에 대한 광대한 인류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것이 궁극에 목표 하려는 것은

신화의 내적 구조에 대한 발견과 더불어 그것을 인류의 문명화 과정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인류학자 레비 스트라우스(Lévi-Straus), 철학자 루카스(Lukács), 월터 벤자민(Walter Benjamin), 로센즈웨이치(Rosenzweig) 그리고 부분적으로 니체(Nietzsche)나 하이데거(Heidegger)에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들의 사유



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⁴⁾ 그럼에도 이러한 '고전적 방식'은 아직 현대 문명화의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도리어 그것은 전통적 문화에 담긴 가치와 구조들의 단순 회복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유토피아적 사회를 재생산하려는 것으로도 비춰

져 오늘날 정치적 과 같이 낭만적 방식 또한 신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진실된 관계를 밝히려는 신화에 대한 또 다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고대에 자연으로부터 신의 이성을 탐구하려는 노력과 같이 낭만적 방식 또한 신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진실된 관계를 밝히려는 신화에 대한 또 다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3) 이 점에 있어, 철학자 지안니 바티모(Gianni Vattimo)는 신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3가지의 서로 다른 혼돈된 철학적 사유 유형을 -고전적 방식(archaism),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그리고 한정적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들고 있다. '고전적'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 방식이란 본문에서 설명되는 '낭만적' 그리고 '계몽적' 방식과 유사하며, 신화에 대한 이해의 세 번째 유형으로 '한정적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정적 합리성'에서의 신화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 도리어 특정의 경험적 영역들 -예를 들어 대중문화, 심리적 삶, 역사편찬- 에 적합한 일종의 '서술적 이야기'(narration) 혹은 지식으로 바티모는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이것 또한 과학과 신화적 지식을 서로 다른 두개의 사유방식으로 인식하나, 그들 각각은 서로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없는 특정의 경험적 영역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사유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정은 아직 신화적 지식과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경험 영역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티모는 비평하고 있다. 대신 그의 글에서 그는 유럽문화의 역사와 종교에 있어 (특히 종교에 있어) 신화적 전통의 강한 역사적 진행을 설명하면서 현대의 문화적 현상을 신화의 세속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Gianni Vattimo (1985).

4) 현대 유럽의 문화에서 니체와 하이데거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니체의 잘 알려진 유럽문화에 대한 회의적 방향에서의 이해만큼 소크라테스적 사유나 그의 후계자들에 대한 그의 비평, 그리고 하이데거의 Seinsvergessenheit (with all that it implies) 개념은 현실적인 것에 대한 선행이상학적(premetaphysical) 혹은 prelogical) 태도의 재발견, 즉 포괄적으로는 신화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bid.,p.31.

태로 가정하지 않는다. 즉 신화와 과학을 인간 지식의 서로 상반된 두 영역이라 가정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도리어 서로 다른 형태로 분담하고 있는 인간 지식의 가장 기초적 가정들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 속에서 신화란 마치 '인간이 지닌 믿음이란 세계의 가장 근원적 형태'(source of man's belief system)와 같은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현대의 믿음은 세계문화를 연속적으로 진행시킨 문화의 한 자율적 방식이기는 하나 동시에 그것은 '이성적 합리성'(rational)의 잘못 의도된 객관성으로 이 시대가 지닌 신화와 같은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사유 유형의 대표적 예는 철학자 오토 마르쿠아르트(Oto Marquardt)나 쿤(Kuhn)의 이론, 하이데거(Heidegger)의 해석학, 그리고 로랜드 바스(Roland Barthes)의 신화구조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신화의 절대적 형태가 아닌 대중문화나 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의 방법론적 구조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사유 유형에 이론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대적 유형 또한 '고전적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특정 장소의 문화에 대한 연속적 고유성이나 그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그 답이 분명치 못하다는 비평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히 알아본 신화해석에 대한 대표적인 두 유형 외에,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신화에 대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이해, 즉 신화의 다양한 성과나 그 창조성보다 신화 자체의 발생 근원에 대한 사유를 철학자 한스 블룸버그(Hans Blumenberg)를 통해 보게 된다. 특히 지금에 있어 그의 신화해석에 대한 중요성은 과거와는 다른, 문화와 예술에서 상징적 형태는 왜 발생하며 그로인해 무엇이 올바른 상징적 표현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해 가능케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사유 형식들에서는 신화의 창조성을 인간에 내재된 본성에 근본적으로 남겨둠으로 이해의 합리적 논리 보다는 모호함과 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 시킨 반면, 블룸버그

의 독특한 사유형식은 현대의 문화예술, 특히 건축과 같은 예술형식에서 상징 즉 신화적 특성의 발생근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히 하며 또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비평적 관점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블룸버그의 신화론적 관점은 건축 또한 신화적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에 현대 예술은 물론 건축에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2-2 '실재에 대한 절대성' 극복으로의 신화 신화에 대한 철학자 한스 블룸버그(Hans Blumenberg)의 가장 독특한 사유(思惟)적 특징은 신화를 결정되어진 상징적 형태 혹은 '지속되는 진리'(coherent truth)로 해석한 지금까지의 보편적 이해에 대한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룸버그는 신화의 창조를 자연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생물학적 반응'(biological response)으로 인식하며 그로인해 그것이 지닌 비-절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화들이란 그것이 지닌 서술적 특성으로 인한 고도의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최저한의 변이를 가능케 하는 뚜렷한 능력 때문에 (그 자신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특성은 (결국) 신화를 전통이란 것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속성은 예술적 혹은 종교 의례적 표상 속에서 그들을 인식 가능케 하는 매력을 생산해 내며, 또한 그 변이성은 그들을 표현하기 위한 새롭고 개인적인 방법을 끌어내는 매력을 산출하고 있다. 그것은 작곡가와 청취자 모두를 위한 매력이라는 것이 음악으로 인해 가까워져 있듯이 (바로) '주제와 변이'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신화들이란 하나의 미소(微小)함에서도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텍스트'와 같은 것이 아니다.”⁵⁾

5) "Myths are stories that are distinguished by a high degree of constancy in their narrative core and by an equally pronounced capacity for marginal variation. These two characteristics make myths transmissible by tradition:

이러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신화에 대한 그의 주된 주제는 궁극적으로 '실재에 대한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으로 설명되는 신화의 발생근원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재에 대한 절대성'이란 블루멘버그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생물학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그에게 신화란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이 내린 대답이며 인위적인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이나 신화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닌 '인간의 존재'(human existence)를 가능케 하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무엇이 된다. 여기서 '실재에 대한 절대성'이란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먼 원시조상이 무슨 이유에서건, 예를 들어, 그들이 살던 숲을 떠나 대 초원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들은 숲에서 살면서 경험적으로 얻고 개발된 자연적 직감과 본능이 새로이 펼쳐진 환경과 인식적 조건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빠른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그들은 모호함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며, 마침내 그들 존재에 대한 조건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블루멘버그는 이러한 상황을 존재환경의 변화로 인한 적응의 갑작스런 결핍, 즉 '실재에 대한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이라 부르며, 다른 한편 이러한 상황이 정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앵그스트'(Angst) 혹은 '불명확한 예상에 대한 순수 상태'(the pure state of indefinite anticipation)나 '대상없는 의식'(consciousness without an object)이라 묘사할 수 있는 '존재적 불안'(existential anxiety - Lebensangst)이라 설명한다.⁶⁾

그리고 이러한 존재적 불안으로 다가올 상황에

Their constancy produces the attraction of recognizing them in artistic or ritual representation as well [as in recital], and their variability produces the attraction of trying out new and personal means of presenting them. It is the relationship of 'theme and variations,' whose attractiveness for both composers and listeners is familiar from music. So myths are not like 'holy text,' which cannot be altered by one iota." Hans Blumenberg(1990), p.34.

6) Ibid., p.4.

대해 인간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반응은 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필연적으로 예감하게 되며, 또한 결여되어 있는 무엇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과정으로, 블루멘버그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말(word)이나 상징적 형태(symbolic form)의 심리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준비는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숙치 않은 것에 대해 친숙한 무엇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명명'(命名)되지 않은 것에서 '명명'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된다.⁷⁾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이름 지워진 사물들의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을 통해 말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창조해 내듯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모호함은 밝혀지고 계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분명해진 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무엇에 대한 믿음이나 세계에 대한 친숙함은 바로 언어들이나 이야기들과 같이 대상에 대한 해석적 '명명'함 즉 신화 혹은 신화적 행위를 통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⁸⁾ 다시 말해, 역으로 생각하면, 신화란 첫 '명명'되어짐의 근원을 말하는 이야기와 같으며, 이 경우 각각 '명명'되어진 이름들은 태고로부터 인간이 삶 속에서 관계해온 모든 사물들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비밀의 열쇠와 같다. 그러하기에 신화의 창조란 인간이 현 세계에 대한 존재적 모호함을 넘어서 그 자체의 존재성과 자의식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장소의 발견 과정이라 말할

7) Ibid., p.5

8) 블루멘버그의 언어에 대한 이론은 다음의 글을 볼 때 철학자 프래드릭 폰 쉬레겔(Friedrich von Schlegel)의 언어에 대한 이해에 근원적으로 기초되어 있는 듯하다.

"언어의 창조적 무한함과 함께 시작되며, 그리고 궁극에 언어는 마치 창조되어진 것을 제 것으로 받아 들이 듯이 그것을 명명한다. 그래서 언어는 창조적인 동시에 마지막 창조품, 즉 말과 이름인 것이다. 신에게 있어 이름이란 즉 말씀이기에 창조적인 것이며, 그리고 신의 말씀은 그것이 명명된 것이기에 인식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좋게 보였더라'; 즉: 그는 명명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해왔다.... 그 방법은: 신은 사물들을 그들의 명명된 이름 안에서 지각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든, 깨닫게 된 앞에서 그들을 명명한다." Walter Benjamin(1978), p.323.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재적 모호함의 지평적 열림은 단지 인간 삶에 있어서 시공을 넘어 계속되는 과정일 뿐이기에 인간은 항상, 블루멘버그에 따르면, '실재에 대한 절대성'이란 세계 속에 머물러 존재한다.

2-3 선택된 기호들의 유기적 결합과 시학(詩學)으로의 신화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이 블루멘버그에 따르면,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도전은 주어진 자연적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혹은 실존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적 위협에 대한 적응본능으로 인간은 불투명한 대상에 대해 '명명'함으로써 그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려 하며,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신화와 같은 상징적 형태를 창조하고 다양한 문화적 삶을 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화는 어떠한 구조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인가?

상징적 형태로의 신화에 대한 독특한 사유로 현대에 가장 잘 알려진 철학자 Ernst Cassirer (Ernst Cassirer)는 상징적 형태를 '동물적 상징성'(animal symbolicum)과 같은 인간의 본성에 주어진 자연적 표현으로 인식한 반면,⁹⁾ 블루멘버그는 그것을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 그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의지'(spontaneous will)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의 '낭만주의'(Romanticism)나 '미학적 이상주의'(Aesthetic Idealism)'에서 인간의 여러 행위들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조작적 모델'(operational model)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본성적 '상상'(imagination)이란 세계의 다양성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작체(operator)로 받아드려 진다. 반면, 블루멘버그는 그러한 '상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어떠한 상상도 존재에 대한 규정적 방식으로

9) 철학자 Ernst Cassirer의 상징적 형태와 신화적 사유에 대한 그의 이해는 논자의 또 다른 논문 -건축의 문화적 현대화에 있어 신화와 기호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을 참조.

문화 인류학이나 인종학이 수집해온 것들, 세계에 대한 해석들, 삶의 형태들, 분류들, 장식들 그리고 기호들을 발명해 낼 수는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점차적인 발전으로의 메카니즘과 유사한, 자연 그 자체로 보여 지는 형태들에 대한 믿음과 엄청난 변화로 다가가게 되는 (즉) 선택의 과정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¹⁰⁾

이 경우, 신화란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그가 의도적이며 인위적으로 해결한 '성취적 기호'(accomplishment sign)나 언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블루멘버그는,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인간이 현실에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표현해온 하나의 방법은 그 대상이 흥미로운 것이든 아니면 두려운 것이든 그들을 시각적이거나 서술적인 형태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그에게 신화는 설명되어지거나 우화적 해석을 요하는 구체적인 물성, 즉 그의 말을 빌리면 '비극적 이야기로의 물질적인 것'(the material of tragedy) 혹은 '이성의 높은 캐럿적인 작업'(a piece of high-carat work of logos)으로 인식된다.¹¹⁾

이런 점에서, 신화란 그 스스로 정적(靜的)이지 않은 도리어 그 내부에 역동적인 말들, 즉 그리스 시대에 mython mytheisthai라는 말이 본디 시일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러나 수 천년을 통해 그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대해 말함을 의미하듯,¹²⁾ 새로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존재적 말들을 '임신'(pregnancy)하고¹³⁾

10) "No imagination could have invented what ethn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have collected in the way of regulations of existence, world interpretations, forms of life, classifications, ornaments, and insignia. All of this is the product of a process of selection that respect, in this analogy to the mechanism of evolution, approaches the stupendous variety and the convincingness of the forms of nature itself." Ibid., p.162

11). Ibid., p.27, p.12.

12). Ibid., p.149. 블루멘버그는 신화의 이러한 특성을 '말의 다윈적 진화론'(Darwinism of words)이라 정의한다.

13) 블루멘버그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의미는 Ibid.p.69 참조.

있는 이야기와 같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존재의 지가 함축되어진 시적 언어들, 예를 들어 인간의 모든 물질적 혹은 정신적 행위를 방향지우는 그 시대의 객관적 진보에 대한 정신을 표상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이러한 구체성의 내부 구조는 이미 '시적'(poetic, 詩的)으로 해석되어진 언어와 같은 부분들, 즉 존재성을 내포한 '성취적 기호'들이 '유기적 결합'(configuration)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신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신화의 전체적 특성에 관계되어있는 여러 특징적인 언어, 즉 기호와 같은 단편들의 발견과 그것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보다 실존적 특이성 내에서의 '시적' 해석을 통해 비로써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면 신화의 발생근원과 그것의 구조적 특성은 결국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생물학적 반응과 그러한 반응으로 선택되어진 존재적 언어들, 즉 '시학'(poetry, 詩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여기서 특히 신화의 구조적 특성을 '시학'에 비유함은 신화가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 가장 초기의 형태가 언어로 구성된 시학인 동시에, 더 나아가 시학은 상상의 단순한 실행을 거부하며 도리어 '부정의 부정'(negation of negation)으로의 과정을 통한 언어기호들의 '선택 과정'(process of selection)으로 신화와 동일한 구조적 구성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낭만적 방식에서의 상상이란 인간의 본유적 창조본성에 남겨져 있는 것이기에 자유롭고 다양한 창조는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객관성을 상실한 지나친 그것의 주관적 해석과 표현은 결국 문화와 예술의 상업적 매너리즘만을 생산하게 되는 위험을 지니게 된다. 대신, 블루멘버그에게 시학 즉 신화의 창조를 위한 진

정한 상상의 형태란 생물학적 생존의 과정에서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선택된 '언어들의 다윈주의'(Darwinism of words)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위한 합리적 행위란 과학적 이성 에 의해 조작된 절대성 추구와는 분명 다른 것이며, 대신 블루멘버그의 다음 말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되기 위한 합리적 모색"¹⁶⁾- 이기에 하나의 시적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신화에 대한 철학자 블루멘버그의 광범위한 해석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 -신화의 발생 근원과 그것의 구조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이러한 블루멘버그의 사유 틀 내에서 바라본 현대건축, 특히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차적인 해석을 하도록 한다.

3.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 나타나는 신화적 특성

3-1 안도의 건축세계에 대한 두 특성

위에 설명한 블루멘버그의 신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현대건축의 역사적 진행은 과연 어떠한 신화적 세계에 대한 탐구였으며 창조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건축적 행위는 인류와 건축의 '문화적 현대화'(cultural modernization)를 위해 어떠한 '시학'적 구축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의 현대 건축가들 -예를 들어, 시노하라 가즈오(Shinohara, Kazuo), 푸지히로미 (Fujii, Hiromi), 마키 푸미히코 (Maki, Fumihiko), 안도 타다오 (Ando, Tadao)- 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 현상은 국제주의적 경향보다 지역 전통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러한 건축표현으로의 전이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14) 블루멘버그는 이러한 행위들을 철학자 Arnold Gehlen의 어휘를 빌려 '제도'(institution)이라 부르고, 이러한 institution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본유적 감각과 같은 잠재의식에 의해 지도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구조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15) 시학과 상징적 형태의 구성방식에 대한 유사성은 고대 이후 현대에 들어 니체나 카시러, 하이데거의 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될 만한 양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16) The ultimate process of rationality, "it can be rational not to be rational to the utmost extent. ... Thus, the selection of constants over long periods of time is, in fact, a condition of the Possibility of running the risks of 'trial and error' in parts of one's behavior." Ibid.,p.163.

건축가 안도는 지역의 전통적 의식과 가치를 가장 현대적 감각으로 잘 해석하고 표현한 일본의 대표적 건축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의 현대 문화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새로운 형이상학적 가치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것의 건축적 표현은 지금에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안도의 건축적 행위에 대한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하여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현대사회와 문화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미학개념에서의 비평과 그에 기초한 현대주거의 새로운 가치 제시. 즉 현대사회의 존재적 불투명성에 반(反)하여 현대주거의 새로운 가치 개념 즉 새로운 '명명'함으로의 신화창조. 둘째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텍토닉적 실행'(tectonic practice), 즉 형태의 구성에 있어 신화의 근원적 구조형식과 동일한 '텍토닉'적 요소들의 시적 구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전 작품을 통해, 특히 그의 주거 작품들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 두 단계(3-2, 3-3)를 통해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3-2 혼돈의 상업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의 '원초적' 공간과 '시적 고요함'의 추구

먼저, 안도에게 있어 현대사회에 대한 비평적 해석은 다른 지역주의적 경향의 현대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팽배해진 두 문화적 특성-기술의 발전과 자본경제의 낙관론에 기초한 대량생산으로의 문화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피상적 상징주의로의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정신 위에서 그의 관심은 주어진 현대의 문화적 조건 속에서 하이데거(Heidegger)식 개념에서의 '장소'(place)와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모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모색이란 현대의 인간 개개인이 오늘의 상업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실존적 공간의 발견과, 동시에 문화의 '일원적 특이성'(unitary specificity)에 대한 '공공적 자각'(communal awareness)을 통해 '장소'에 대한 독특한 감각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¹⁷⁾ 그것은 마치 혼란과 무질서의 전쟁터로부터 잠시 돌아온 무사(武士)가 극히 제한된 공간과 다도(茶道)의 절제된 의례를 통해 잃어버린 정신의 안정과 엄격성을 회복하였다는 일본의 역사적 전통과 같이 안도는 이러한 은신처로의 안정된 공간을 '원초적인 것'(a primitive one)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공간에서만 사람들이 비로소 상실해 버린 '존재에 대한 의식'(sense of existence)과 '자기 내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self-knowledge)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안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건축이 두 의미성 -그것은 기능이라는 점에서 보면 피할 수 없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또한) 상징적 공간인 동시에 집이 되어야 한다- 을 지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만 공간은 인간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현재에 제한된 재료들 - 노출콘크리트, 돌, 나무, 철 등등- 과 함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냄으로 삶에 대한 의식과 실제의 존재에 대한 느낌을 건축에 (가득) 채우길 원한다."¹⁸⁾

이와 같은 표명은 안도의 비평적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선불교(Zen Buddhism)에 뿌리를 둔 일본의 오랜 전통에 기초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뼈뿔어지고 판에 박힌 듯한 주위의 경험형식들로부터 그리고 계속적인 혼돈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개인을 자유롭게 하고, 무엇보다 두꺼운 노출 콘크리트 벽을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고요

17) Tadao Ando (1986), p.56.

18) Tadao Ando (1977), p.44. "I believe that architecture must have this double meaning -that is, it must be a daily-life space inevitable in the light of the functions it must house while being simultaneously a symbolic space. In this way space can restore the relations between human beings and things. ... I want to charge architecture with a sense of life and a feeling of substantial existence by creating simple geometric forms with materials as limited as possible at present; unfinished concrete, stone, wood, steel, and so on."

함'(silence)의 공간적 안정성, 즉 은신처로의 세계를 되 돌려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대의 주거건축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적에 대한 안도의 새로운 이해 방식은 블루멘버그의 논리에서 볼 수 있는 신화의 발생 근원, 즉 '실재에 대한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의 극복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즉 현대사회 속에서의 '존재적 불안'(Lebensangst)을 극복하기 위한 건축의 신화적 대응으로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안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화적 대응, 즉 '고요함의 건축'(architecture of silence)을 타케푸미 아이다(Takefumi Aid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순수함을 의미한다. 순수함의 형태 속에서는 의미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 고요함의 공간들이란 눈으로는 보여 지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것들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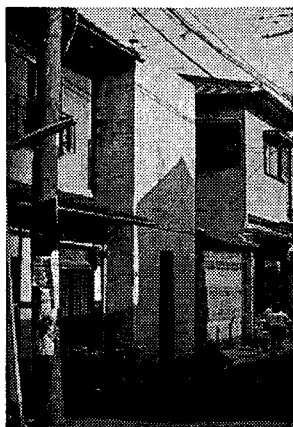


그림 2 혼돈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단절을 위해 두꺼운 노출 콘크리트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Azuma House.

바로, 안도의 건축에서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대의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요함'으로의 신화적 추구는 선불교(Zen Buddhism)의 철학적 명상에서 강조되는 '시적 고요함'(poetic silence)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적'(poetic)이란 안도에게 사물들의 물리적이고 단순한 질서 잡힘보다는 자연의 '추상화된 표

상'(abbreviated representation)적 형태를 나타냄이며, '고요함'(silence)이란 존재의 의미들을 인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고요함'의 공간은 안도에게 단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창조되어지나, 그 형태의 각 부분들, 즉 '텍토닉'적 형태들은 매우 복잡하게 구조화 되어진 주위 세계와의 관계망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안도에게 인간 삶의 형태는 주위 세계와의 복잡한 관계 망으로부터 지각되어진 의미들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구조를 구축하는 동안 형태와 문제(matter), 인간과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통적 관계특성을 다시 정의하고 또한 시적해석을 통해 그것들을 재조정하는 것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러한 기능은 안도의 작품을 전통적인 센노리큐(Snno Rikyu, 1522-91)의²⁰⁾ 건축세계와 비교할 때 가장 잘 설명되어 질 수 있다.

3-3 전통으로부터 계승한 세 가지의 '텍토닉'적 특성과 그들의 현대 시학적 표현

차 의례를 행하는 누각의 구축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설계방법으로 다도(茶道) 공간의 심미적 가치를 16세기 전통적인 차 의례의 대가(大家)겸 건축가 리큐는 일본의 소박한 민속건축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그가 만든 건축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이 밀폐된 듯한 작은 공간의 창조, 즉 매일매일 혼란함의 사회생활로부터 탈피해 도리어 고립된 듯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의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도(茶道)를 행하는 집에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 특성은 사회적인 상징성이나 종교적 성격의 의례와 같은 것에서 보다 정신적인 수양(discipline)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성'(social criticism)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론가 다케야마(Takeyama)는 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정신은 가끔 단순, 간소, 소박 등을 진심으로 갈구함을 의미하는 일본 말 '와비'(wabi)로 함축 표현되

19) Takefumi Aida (1977), p.52. "must be pure. Within pure form there must be multiplicity of meaning. ... Silent spaces are not seen with the eye, they are felt with the heart. For this reason they must be considered as metaphysical, not physical."

20) 16세기 일본 '차 의례'(tea ceremony)의 대가일 뿐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는 누각의 가장 잘 알려진 건축가.

어질 수 있으며, 이 단어의 좀 더 광의적 의미는 '권위적임에 대한 불만족'(dissatisfaction with authority) 혹은 '반제도성'(antiestablishment)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떻든 '와비'(wabi)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 관점에서 보면, 안도의 주거와 리큐의 다(茶)의례 디자인 사이에는 분명 사물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정신적 해석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디자인의 공통성으로 폐쇄성(enclosed), 집중성(concentrated), 고요함(calm), 인위적인 자연성(natural within artificial), 순수함(pure), 정중함(gentle), 엄격함(austere), 외형에서의 단순함(simple in appearance) 그리고 무엇보다 침침한 불빛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장 큰 유사성은 무엇보다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듯한 그래서 인간의 '내면으로 반영되어진 소세계'(inner-reflective microcosm)를 드러내는 공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디자인 사이의 여러 유사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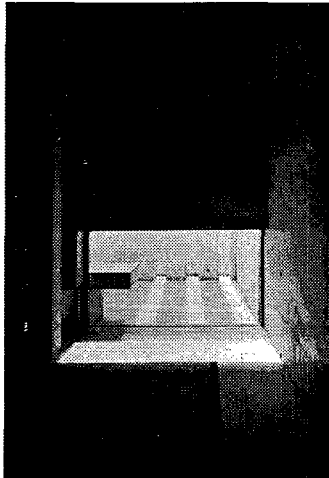


그림 3 인간 내면으로의 반영을 느끼게 하는 Soseikan-Yamaguchi House내의 tea room 실내 공간.

중심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의 '텍토닉'(tectonic)적 특성들 - 빛, 재료 그리고 기하학적 구성으로 다시 분류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텍토닉'적 요소들은 전통으로부터 안도가 현대에 계승한 신화적 기호로 그의 건축을 철학자 불루멘버그나 카시러가 강조하는 신화의 구조적 형식과 동일하게 시적으로 구성지우는 가장 중요한 건축적 언어들인 것이다.

첫 번째 특성으로, 빛은 안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적 해석을 요구하는 물질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방향이나 크기 그리고 그것의 위치는 공간의 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디자인 모두에서 빛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쪽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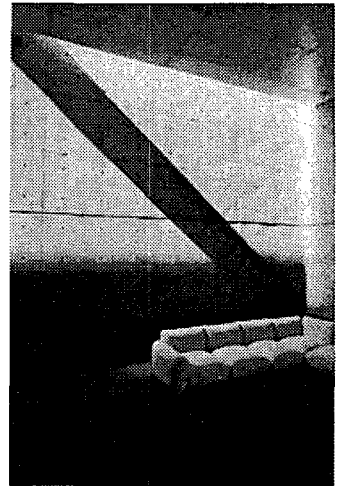


그림 4 빛의 음영이 만드는 역동적 패턴의 변화. Koshino House의 실내전경.

강한 빛의 유입은 공간의 침착성을 상실케 하는 '동요로의 효과'(unsettling effect)를 만들기 때문에 남쪽으로 직접 열려있는 외부로의 오픈닝(opening)은 피하고 있다. 대신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조그만 쇼지(shoji) 창 의 일반적이지 않은 배치와 구성 그리고 그들로부터 넓게 흩어지는 빛의 구성은 그의 주거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다게야마(Takeyama)는 이러한 그들의 빛에 대한 처리 방법을 '미로와 같이 미혹시키는 특질'(maze-like quality)이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지 정원은 문의 입구에서부터 차 의례를 행하는 방까지 그 사이의 공간적 경험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사물들에 대한 예측을 (감각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지 정원은 그 같은 공간을 복잡하게 끌어드리는 다양한 특성의 것들 - 대문들, 디딤돌들, 의례용 수반, 조그마한 정원, 대기용 누각 등등 -을 사용하고 있다. 로지를 통해 지나가면서, 방문객은 니지리구치라고 불리는 작고 낮은 문을 통해 차 의례를 행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낮게 숙여

야만 한다. 이런 낮은 문을 지나기 위해 몸을 숙이는 행위의 심리적 효과는 작고 어스레한 빛의 공간 내부를 좀더 깊고 복잡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²¹⁾

빛 외에도 빛이 만드는 음영의 패턴 그리고 그것들의 정적인 상태에서의 역동적 변화는 리큐와 안도 모두가 창조하고자한 시적공간의 가장 중요한 건축요소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빛과 음영으로 구성된 공간의 효과를 다케야마는 ‘조직체의 미로적 특질’(labyrinth quality of body) 혹은 ‘단순 평면들에서 가능한 복잡성의 정도’(the degree of complexity possible in simple plans)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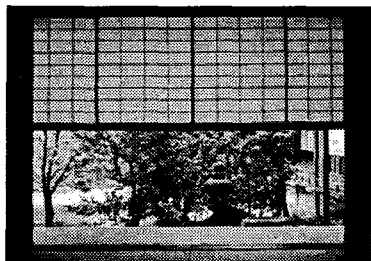


그림 5 ‘와비’라는 전통적인 미학정신을 읽을 수 있는 Shoji창을 통한 Kasura Palace의 전통적 정원전경

들어, 바다와 섬들을 묘사하기 위해 돌들과 흰 모래가 사용된 ‘료안지 사원’(Ryoan-ji temple)의 정원에서, 건식 자연재료들의 사용은 습도가 매우 높은 일본과 같은 기후에서 더욱 상징적 효과를 상승 시키고 있다. 안도의 설계에서도 이러한 관찰과 해석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쉽게 찾아 볼

두 번째 ‘텍토닉’적 특성으로, 형태의 상징적 표현을 위해 자연재료의 사용은 두 건축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학적 특질이다. 예를

수 있으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 재료들 -고창을 통해 제공된 빛과 공기의 흐름, 소리 그리고 콘크리트 벽들과 나무 마루들-의 사용과 함께 이러한 특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도의 노출 콘크리트 벽과 자연나무 마루의 채용은 단순성(simplicity)과 ‘기하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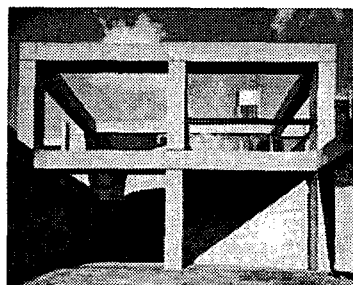


그림 6 Katsura Palace의 실내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기하학적 구조 프레임이 잘 나타나 있는 Manabe House.

구성’(geometrical composition)을 의미하기도 하는 ‘와비’(wabi), 즉 일본의 전통적 미학정신에 기초한 형태의 현대적이며 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순성’(simplicity)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신화시적’(mythopoetic) 세계, 즉 ‘와비’(wabi)의 세계는 두 건축가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계승되어, 다시 형태와 공간의 구성에 있어 모든 부수적인 사물들의 제외, 자연재료에 대한 관찰, 단색계열의 구성, 단순한 ‘텍토닉’적 형태구성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의 구축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특히 안도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정의 비어있음이나 마치 껍질을 벗겨버린 듯한 노출의 벽 표현은 이러한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혹은 분명 보이지 않는 사물들로 공간을 창조하길 원하는 듯 하다. 그래서 그의 공간은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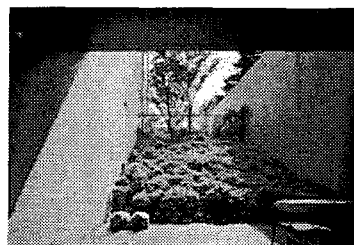


그림 7 자연과의 조화 속에 고요함과 비워있음이 잘 나타나 있는 Lee House의 실내에서 본 정원 전경.

21) Ibid., p.168. “The *roji* garden varies the spatial experience between the entrance gate and the tea ceremony room and stimulates anticipation of new things lying ahead. To achieve these aims it employs a number of different features to complicate that space: gates, stepping stones, ritual water basins, small garden plots, waiting pavilions, and so on. Having passed through the *roji*, the visitor must crouch to enter the tea ceremony room through a small, low door called the *nijiriguchi* ... The psychological effect of crouching through this low doorway is to make the small, dimly lit space inside seem much deeper and complex.”

비워 있는 듯하나 역설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들이 그 속에 내재되고 포함된 비워있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창조 뒤에 숨겨진 '신화시적' 정신은 바로 동양의 철학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일 것이다.

세 번째로 안도가 전통으로부터 계승한 '텍토닉'적 특성으로 우리는 '기하학적 구성'(geometrical composition)을 들 수 있다. 차 의례와 관련된 전통적인 건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정적인 대칭으로의 형태, 개체적인 구조적 부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대칭적 비틀어 트림'(asymmetrical distortion)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역동적인 시적 긴장감은 가장 깊고 오래된 일본의 심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리큐의 디자인에서 이 같은 원칙은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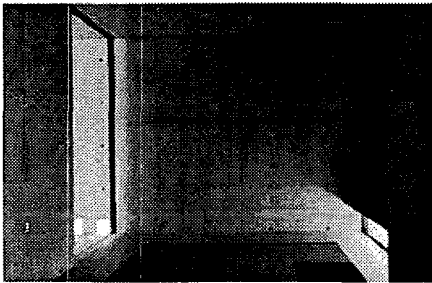


그림 8 전통적인 공간의 비대칭적 비틀림이 표현되어 있는 Soseikan-Yamaguchi House의 tea room.

대칭화된 사각형 속에서 단지 두장의 다다미 매트만을 사용하되, 비대칭적 요소로는 토크노마(tokonoma) 반침들(alcoves), 창문들 그리고 천정의 요소들을 통해 나타난다.²²⁾ 그리고 공간의 긴장감이나 '비대칭적 비틀어 트림'은 또한 창을 통해 들어온 하늘빛의 미묘한 위치함 혹은 벽들의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마감방식에 의해 더욱 고조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설명된 대표적인 세가지의 텍토닉적 특성들은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것들로 안도 자신의 '신화시적'(mythopoetic)인

해석을 통해 현대에 새로이 시학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그런 건축언어인 것이다.

3-4 실존적 방식으로의 신화

위에 기술된 안도의 건축적 행위들은 신화론적 사유, 특히 철학가 블루멘버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되어 질 수 있는가? 그것들은 건축의 단순한 미학적 행위를 넘어서 현대에 적절한 신화 제시로까지 평가 받을 수 있는가? 블루멘버그의 신화론적 사유에서 보면 신화가 발생하는 근원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의 모호함에 대한 적응본능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즉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존적 방식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신화는 문화예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상징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 모습이란 모든 가능한 방법에서 인간이 그의 실존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에 대한 은유적 형태들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은유적 형태들의 구성적 특성은 인간의 실존적 정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학(poetry)과 같다. 다시 말해, 블루멘버그에게 있어 인간은 기초적 존재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상징적 형태를 창조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적 삶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형태들은 인간이 직면한 존재적 문제들에 대한 인위적 반응과 같은 것으로 시적 상상과 해석을 통한 해결의 성취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내부구조는 이미 시적으로 해석되고 선택되어진 기호와 같은 부분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화의 두 특성적 측면에서 볼 때 건축가 안도의 건축적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 분명 우리의 주목을 끈다. 첫째는 현 사회의 과학중심 문화와 그로인해 팽배해진 개인화된 상업적 상징주의에 대한 저항정신. 특히 현대 사회문화에 나타나는 모호한 가치개념과 불투명한 현대화(modernization)로의 진행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과 같은 저항정신. 둘째는 이러한 현 사회문화 및 현대건축의 모호한 진행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주택설계에 있어 새로운 가치개념으로 '원초

22) 차를 마시는 방의 가장 일반적 바닥형식은 4.5장의 다다미 매트.

적 공간'의 제시. 즉 전통으로부터 계승한 '텍토닉' 특성의 재해석을 통한 시적 고요함의 공간적 추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특징은 각각 블루멘버그의 '실재에 대한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과 기호들의 시적인 '유기적 결합'이라는 신화의 두 근본적 특성과 등식적 관계로 이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블루멘버그가 설명하는 세계의 모호함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은 안도에게 있어 현대의 불투명한 과학문화에 대한 저항 즉 '실재에 대한 절대성'(Absolutism of Reality) 극복을 위한 건축적 추구로 이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추구는 건축에 있어 비워있는 공간이나,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 차가운 표면들,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 다도의 공간에서 계승된 고요한 시적 공간의 '미로와 같이 미혹시키는 특질'(maze-like quality) 등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건축에 있어 이러한 텍토닉적 요소들의 시적 재구성, 즉 블루멘버그의 논리처럼 신화의 가장 근원적인 구조특성 -시적인 구조형식- 과 같이 안도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의 시적 특성은 다케야마의 표현처럼 '와비'가 잘 표현된 리큐 세계의 부활 혹은 일본의 전통적인 신화적 세계의 부활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²³⁾

블루멘버그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란 항상 과거와 연결되어 있듯이 특정지역의 신화탄생이 기초하는 실존적 방식이란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해온 전통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도가 건축을 통해 계승하려는 전통이란 무엇보다 인간의 평상적 삶에 대한 생물학적인 비판과 고려의 부분이다. 다시 말해, 그의 관심은 전통으로부터 '일상적 질서'(ordinary order)의 계승과 재 소개, 특히 집과 자연 사이에 존재해온

질서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²⁴⁾ 이 경우, 안도는 일상성만큼 무엇보다 엄격성은 인간의 현대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한다.²⁵⁾ 팽배해진 피상적 편리함이나 혼란 그리고 불확실성의 현대사회에 반(反)하여, 안도는 전통에 대한 그의 시적 해석을 통해 엄격한 질서 속에서의 생활로부터 발전된 새로운 생활 패턴과 공간의 특징한 긴장감 -엄격성- 을 창조해 내고자 하고 있다.

안도에게 있어 이러한 엄격성의 추구는 다른 현대건축과 유사하게 기능에 대한 합리적 추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것은 지난 현대건축(Modernism architecture)에서의 기능적 추구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도는 이점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건축이 얼마나 멀리까지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추구가 이루어진 다음 건축이 다시 얼마나 멀리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지 보고 싶다."²⁶⁾ 안도의 말을 해석해 보면, 건축은 필연적으로 두 요소 즉 유한성과 무한성 모두를 소유하며, 특히 기능적 대상으로부터 그의 건축을 분리시키기 위해 무한적 요소들에 대한 추구행위는 무엇보다 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추구는 바로 안도에게 인간의 삶에 주어진 시공(時空) 속에서 신화적 특성의 발견과 재창조를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그 재창조의 방법론적 실현을 위해 '텍토닉'(tectonic)적 전통의 중요성, 즉 실존적 특이성이나 정체성을 표상할 수 있는 디테일의 중요성을 안도는 함께 강조하고 있다.

"빛은 시간에 따라 (그것의) 드러냄을 바꾸고 있다. 나는 건축적 재료들이 실제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나 콘크리트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빛과 바람을 포함하는데 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믿는다. ... 디테일은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서 존재한다. ... 그래서 나에게, 디테일이란 건축의 심리적 성질을 달성시키는 요소이며, 동시에 건축의 이미지에 대한 발생인(發生因)

23) "The room i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Ando's spiritual fellowship with tea ceremony architecture in general and especially with that of Sen no Rikyu. As if it were a resurrection of Rikyu's world of wabi, the room is filled with the tension of the dynamic contained within the static. It exemplifies the act of inheriting tradition on its spiritual plane." Kiyoshi Takeyama (1983),p.180.

24) Tadao Ando (1982),p.8.

25) Tadao Ando (1980),p.45.

26) Ibid.,p.46.

이기도 하다”²⁷⁾

안도에게 있어 신화추구로의 건축적 행위는 전통의 계승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현 사회에 공존되어 있는 과거와 현대 모두의 정신적 특성들을 선택하고 다시 융합-해석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현대의 형식적 방법과 구성적 특성을 오랜 지역적 삶의 방식이나 미학적 의식과 같은 인류학적 특성들과 함께 창조적 방식 내에서 조화 혼합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도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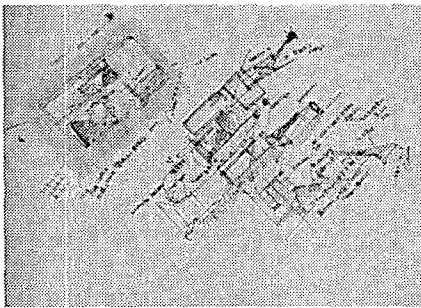


그림 9 Ando의 디테일에 대한 세심함을 볼 수 있는 Bansho House Sketch 도면.

된 그러나 일본의 독특한 미학적 의식으로 개인화된 모더니즘”²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창조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대의 특성으로 선택된 대상들에 대한 ‘신화시적’인 해석과 상상의 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문화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주요 근거로 이성의 절대조건이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기본적 조건들을 먼저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건축 또한 앞서 설명

27) “Light changes expressions with time. I believe that the architectural materials do not end with wood and concrete that have tangible forms but go beyond to include light and wind which appeal to our sense. ... Detail exists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expressing identity. ... Thus to me, the detail is an element which achieves the physical composition of architecture,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generator of an image of architecture.” Ibid.

28) “personalized modernism with the simple but potent aesthetic consciousness unique to Japan” Tadao Ando (1989b), p.21-23.

된 안도의 시적 고요함의 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과 공간의 ‘윤리적이며 신화적인 토대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 이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이어야 하기에 장소와 시간의 신화적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마지막으로, 왜 이 시대에는 신화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 논문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문학가 남진우는 “90년대 문학의 성격과 반성”이란 글에서 “오늘날 말은 더 이상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고 인간을 존재의 잃어버린 원천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견해로 더 일찍이 소련의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트프스키는 그의 영화 ‘희생’의 연출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말이 주술적 차원과 마법에 홀리게 하는 차원을 상실하고, 말이 한때 가졌던 신비한 역할이 없어진 오늘날, ... 말은 점차 내용 없는 잡담으로 변질 되었다. 말은 ...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킬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소식들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²⁹⁾

위에 언급한 두 사람의 글 모두에서 의식될 수 있듯이 현 세계는 근본적으로 ‘의미와 가치의 중심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학적 진보에 대한 믿음 대신 불확실성과 회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으며, 더 더욱 우리를 내면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결핍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현대는 이성 중심의 철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만능적 믿음으로 근대 이전과는 달리 사회와 인간 삶의 형식을 틀 지워주던大神話(大神話)를 상실했으며, 불확실성과 회의 속에서 도리어 신화의 박탈과 모조신화의 포화를 동시에 누리는 아이로닉(ironic)한 삶을 살아가는 듯하다. 우리 주변만

29) 남진우(1993), p.94.

을 둘러봐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상징, 즉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마취시키며 상업화되기 조차한 모조신화의 탄생을 끝없이 보게 된다. 이러한 모조신화들의 계속되는 생성과



그림 10 모조신화의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진 현대도시.

소멸은 그때 그때 마다 불확실성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일 수는 없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불확

실성으로부터 '의미와 가치의 중심'을 회복해 줄 무엇, 그런 점에서 고유명사로서의 신화가 아닌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성을 밝혀내는 동사적 움직임으로의 신화와 그것들을 시적으로 읽고 다시 구성 지우려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건축가 안도의 건축행위는 또 다른 양식창조의 미학적 행위를 넘어서, 일본이란 특징의 문화적 사회에 새로운 신화를 제시하려는 건축적 행위인 동시에, 앞서 설명된 철학가 블루멘버그의 사유에서 볼 때, 거시적으로는 현대의 문화적 모호함, 즉 '실재에 대한 절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일본의 현 문화가 지닌 존재적 모호함을 넘어서 새로운 실존적 공간의 발견을 위한 노력인 동시에 신화창조를 위한 시적 행위로 인식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한국건축의 현 문화적 상황이 전통의 연속을 현대적으로 이루어 보려는 지금의 노력에서 볼 때, 안도의 건축에 대한 평가는 그가 행하는 형태양식에 대한 모방이나 부정으로의 미학적 비평보다 건축공간을 구성지어 나가는 그의 시적 논리와 '텍토닉'적 실행방법에 대해 좀 더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1. Tadao Ando. "New Relations between the Space and the Person." *Japan Architect*, 247, 1977, p.44-46.
2. Tadao Ando. "Axial Symmetry in Concrete." *Japan Architect*, 276, 1980, p.41-46.
3. Tadao Ando. "Special Feature: Tadao Ando." *Japan Architect*, 301, 1982, p.8-76
4. Tadao Ando. "Wombless Insemination: or the Age of Mediocrity and Good Sense." *Japan Architect*, 347, 1986, p.56-58.
5. Tadao Ando. "Due Opere Recenti." *Casabella*, 539, 1987, p.54-56.
6. Tadao Ando. "Representation and Abstraction." *Japan Architect*, 372, 1988, p.8.
7. Tadao Ando. "Place - Geometry - Nature." *Space Design*, 300, 1989a, p.006-007.
8. Tadao Ando. *Yale Studio and Current Works*. New York: Rizzoli, 1989b.
9. Roland Barthes. *Mythologies*. New York: Noonday Press, 1990.
10. Hans Blumenberg. *Work on Myth*. trans. by Robert M. Wallac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11. B. Bognar. "Leatest Work of Tadao Ando" *Architectural Review*, 1029, 1982, p.68-70.
12. Ernst Cassirer. *Language and Myth*. New York: Dover, 1953.
13.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Seattle: Bay Press, 1983.
14. Alberto P. 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15. David Farrell Krell. ed.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from Being and Time(1927) to the Task of Thinking(1964).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
16. Demetri Porphyrios. "Classicism is not a Style." Architectural Design. vol 52, 1982, p. 51-56.
17. C. Lévi-Straus. Myth and Meaning. New York: Schpcken Books, 1979.
18. K. Takeyama. "Tadao Ando: Heir to a Tradition." Perspecta, 20. 1983, p.163-180.
19. Gianni Vattimo. "Myth and the Fate of Secularization." RES, 9, 1985, p.29-35.
20. 남진우. "특집: 90년대 문학의 성격과 그 반성: 묵시록적 시대의 글쓰기." 세계문학 1993년 봄호, p.91-129.

A Study on the Myth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House Designed by Tadao Ando

-Focused on the mythological thinking of Hans Blumenberg-

Byun, Tae Ho
(Sungkunkwan University)

Abstract

In terms of the way we perceive the world, the history of human beings might be said to be a history of two incompatible forces - 'science' and 'myth.' Until today, both indispensable aspects have made human existence possible and characterized human culture. Nonetheless, an essential definition of myth has never been clearly explained. What is the general philosophical thought about myth? Current well known interpretations are so called Enlightenment and Romanticism of myth, which both has same criticism that they has not generally considered myth in terms of its technical function or specified contents. One who overcomes the limit of two current extreme beliefs on myth and also who concerned more with the ultimate origin of myth and its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poetry than the source of its vital accomplishments is philosopher Hans Blumenberg. For him myth is an artificial means and an answers to overcome the "absolutism of reality."

On this point, the research concerns basically two issues. One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myth through philosopher Hans Blumenberg's anthropological reflections. The other is to analyze architect Tadao Ando's works and thinking. The intention of the paper is not onl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ical theory of Blumenberg and Ando's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to suggest a new critical understanding on architecture from mythological point of view. I also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suggests a concrete theoretical idea for constructing and construing artistic form and cultural space.

keywords : Hans Blumenberg, Ando Tadao, Myth, Poetry, Wabi, Tectonic
